



## 유통구조 개선에 관심을



심 준 식  
본회 천호채란분회 회장

**제** 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‘영광과 ‘시련’을 동시에 안고 국민정부가 출범하였다. 김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을 중시하고 농어가 부채경감,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.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양계인인 한 사람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김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.

축산인 뿐만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IMF체제 극복과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. 우리 채란분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. 현재 사료가격 등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, 외국으로 부터 리스자금을 빌려와 시설 개선을 한 많은 농가들이 도산을 하는가 하면 도산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

이처럼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간내에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길만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양계인들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.

둘째로 계란 유통구조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면 하는 바램이다. 이는 유통마진을 없애고 직거래 체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부

합된 문제로 계란의 경우 생산농가에서는 생산비선 이하로 상인들에게 출하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계란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. 따라서 채란분야에는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직판장을 설치하여 가격 현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뒷바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. 또한, 현재 전국에서 협동조합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는 집하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. 그럴경우 상인들의 횡포가 줄고 유통마진도 낮아져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.

셋째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생산농가에 경영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. 사료대금이 없어 생산피크에 오른 닭들을 굶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리스자금 상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가에게는 상환연장에 도움이 될 수있는 조치 내지는 경영자금을 통해 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뒷바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.

이 외에도 수출방안 모색 등 요구사항이 많으나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도 이에 못지않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. 우리 채란인들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생산비 절감 등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 난국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본다. **양계**